

“자동속도 장치 미작동”… 조종과실? 기체결함?

아시아나 기장 밝혀… 사고 원인 중요 단서될 듯

한·미, 블랙박스 합동조사… 과잉 정보공개 논란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차량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가 자동속도설정 기능(오토 스크롤) 작동여부와 작동하지 않았다면 원인이 무엇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사고 당시 조종을 맡은 기장과 교관 기장이 미국 당국에 자동 속도설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고 비행기가 차량 직전 지나치게 낮은 고도와 느린 속도로 활주로에 진입한 원인이 조종사 실수 외에도 기계 결함에 있었을 가능성에 제기되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나흘째인 9일(현지시간) 현장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국토교통부 조사관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블랙박스 조사에 합류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조종사 노조단체인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사 진행상황을 과잉 공개한다고 지적하는 등 조사 과정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기장 “자동속도설정 작동 안했다”=데버러 허스먼 NTSB 위원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고 조사 브리핑에서 두 기장이 차를 준비를 하면서 권장 속도인 137노트(시속 254 km)로 날도록 자동 속도 장치를 설정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자동 속도 설정 장치는 조종사가 원하는 속도를 입력하면 비행기가 스스로 속도를 유지하도록 작동한다.

조종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차를 때 비행기가 권장 속도인 137노트로 날도록 이 장치를 설정했으나 사고기는 이보다 느린 103노트로 활주로에 진입했다. 4000피트 상공에서 차를 준

비에 들어간 조종사는 비행기 속도가 설정보다 느리고 고도도 낮다는 사실을 500피트 상공에서 인지하고 급히 속도를 높여 기수를 올리려 했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NTSB는 조종사들의 이 같은 진술에 따라 비행기 기록 점검 등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종사들에 대한 음주·약물 복용 조사에서는 아무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의 사고기 블랙박스 합동 조사도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 조사관 2명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기의 차륜용 바퀴가 먼저 방파제에 부딪힌 뒤 꼬리 부분이 충돌한 사실을 밝혀냈다.

◇블랙박스 합동조사 시작=사고 현장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기체 하단부에 들어 있는 수화물 분리작업이 끝나면 NTSB 측의 최종 허가를 받아 현재 활주로에 그대로 보전되고 있는 기체를 처리하는 작업도 조만간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의 사고기 블랙박스 합동 조사도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 조사관 2명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블랙박스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과 아시아나항공 B777 기장 등 2명은 NTSB의 비행자료 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녹음장치(CVR) 조사에 합류했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합동조사반은 한국조종사협회 측 변호사 입회에 조종사 2명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현재 나머지 2명의 조종사를 조사하고 있다. 관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확인하기 위해 공항 관제사가 고도와 각도 등의 정보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기 탑승객 중 샌프란시스코 현

지에서 입원 중인 부상자는 25명이라고 국토부는 집계했다. 이 가운데 한 국민 탑승객과 객실 승무원은 각각 4 명이다.

◇조사당국 ‘과잉 정보공개’ 도마=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조종사 노조 단체인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는 성명을 내고 NTSB가 사고기 조종석 대화 등을 공개한 것은 시기상조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고 직후 NTSB가 부분적인 데이터를 잘못된 방식으로 공개했다”면서 “이런 불완전하고 맥락에서 벗어나는 정보는 사고 원인에 대한 수많은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고 수습 최선 다하겠습니다”

윤영우 아시아나 사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윤 사장은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심심한 사의와 애도를 표한다”며 “아시아나 항공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종사 과실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공통형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중국 여학생 ‘소방차 치여 사망’ 가능성 수사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차량사고로 숨진 중국인 여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소방차량에 치여 숨졌을 가능성이 대해 미국 경찰이 수사에 나

섰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은 뱃소니 전담반이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SFPD의 앤비 에스파르사 대변인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며 자세

한 언급을 피했다.

SFPD는 이런 상황에서 뱃소니 전담반과 대형사고 전담팀이 함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사고기 비상 탈출 슬라이드 근처에서 발견된 중국 여학생이 사고 직

후에는 생존했다가 구조 차량에 치여 숨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방관은 사고 당시 상관에게 이 같은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의 데일 칸 국장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 희생자가 사고 와중에 우리의 (응급) 장비와 부딪쳤을 수 있다”고 가

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연방정부 조사관들은 공항 내 CCTV 녹화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데버러 허스먼 위원장은 밝혔다.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구조 차량 5대의 운전사들은 모두 약물·음주측정에서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연합뉴스

선암동 전원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기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 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로도 접

찾아오는길 선운자구

영광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 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애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 건 물 2974 ㎡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5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 건 물 1107 ㎡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4억

부실채권매각은 매수회원자 현장실사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거리 앞 건물) 또는 (지신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한우전문점 점장 모집

남평읍 “술향기 맑은터” 한우전문점에서 근무하실 용모단정한 점장을 모집합니다.

호텔경력자 또는 관리경험자 45세미만 남,녀
연봉 3,000만원이상, 4대보험, 퇴직금, 월4회 휴무
이력서(사진), 자기소개서 지참 면접
문의 010-7570-7525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월신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5억

▷도입동 5층 상가 건물 8.5억

▷지산동 5층 사무실 건물 16.5억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 천 월3백만

대지/전답

▷니주시 평생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원도군 양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장성군 서산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
양시설 적합)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신성동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첨단 매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
10억 월 1,200만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변 주유소 7억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협력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상가 주택임차에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동구 충장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김정가43억 최저가24억

▷광산구 운남동 2층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

440㎡ 김정가15억 최저가3억5천만

▷광산구 신기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김정가16억9천만 최저가4억8천만

단독주택

▷서구 확정동 2층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김정가1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서구 확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김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4천만

▷광산구 송정동 2층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김정가1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 및 창고

▷광산구 지죽동 중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

1379㎡ 김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김정가30억 최저가21억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